

[IR큐더스, 최근 3개년 신규 상장사 대상 IR웹사이트 현황 조사]

주주와 소통하는 'IR웹사이트' 신규 상장사 10곳 중 7곳만 운영

- ▶ 최근 3개년 신규 상장사 212개 기업 중 154개 사(72%)만 IR웹사이트 운영
- ▶ IR웹사이트로 분기별 실적자료 꾸준히 공유하는 기업 212개 사 중 총 22곳(10%)에 그쳐

<2020-02-14> IPR 컨설팅 전문기업 IR큐더스(공동대표 이준호, 이종승)가 14일, 최근 3개년 신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홈페이지 내 IR메뉴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IR큐더스 측은 조사 배경에 대해 “최근 이뤄진 공정경제 3법(상법,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주 권리 강화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기업의 IR웹사이트 현황 조사로 주주와 기업간 소통 현주소를 점검해 보기 위함” 이라고 전했다.

이번 IR웹사이트 조사 대상은 최근 3개년(2017~2019년) 신규 상장한 새내기 기업 212개 기업이다. 단, 스펙 상장 및 합병, 리츠 상장사는 제외했다. 조사 결과 212개 기업 중 약 72%, 154개 기업만이 홈페이지 내 IR메뉴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8개 기업은 IR메뉴조차 없어 기초적인 투자정보나 IR부서 담당자 연락처 등이 누락돼 투자자와의 소통창구가 단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기업 현황을 적극 알리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정기적으로 분기별 IR자료를 올린 기업은 단 22곳으로, 조사 대상 중 10%에 불과했다. 이는 분기 보고서 공시와 별도로 홈페이지에 자료 업로드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할 의무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웹사이트 관리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 또한, 부실한 웹사이트를 운용하는 상장사에 대해 “회사가 투명하지 않거나 경영진 신뢰도가 떨어져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공식화하고 있어 상장기업의 주주 소통 창구로 IR사이트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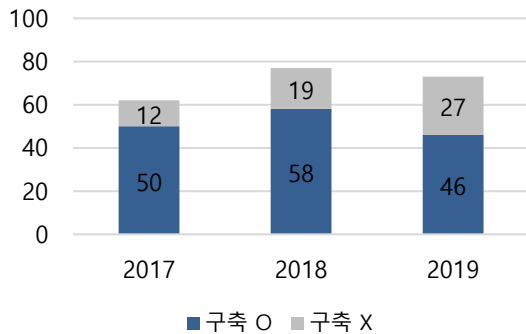
실제로 지난 연말 발표된 해외 주요 상장사 IRO 설문(Citigate Dewe Rogerson 발표, 2019.10) 조사 결과, 글로벌 IRO들의 최우선 업무 과제가 'IR웹사이트 개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IR큐더스 이종승 대표는 “해외의 경우, IR사이트 내 투자정보 관리가 주주관리 전략의 첫 단추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국내 상장기업의 경우 IR사이트 관리에 소홀한 기업이 있어 아쉽다”며 “이번 공정경제 3법 시행령 개정과 IR환경 변화로 주주권리 강화가 대두되면서 기업과 주주, 투자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의 단초인 IR사이트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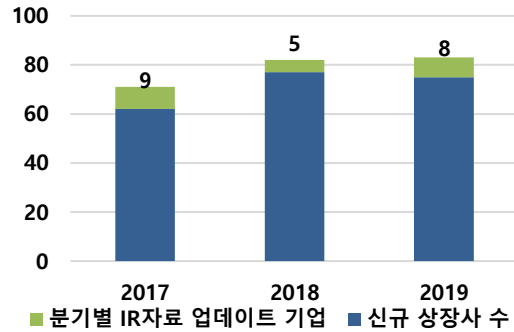
#####

<참고 자료>

홈페이지내 IR메뉴 구축



분기별 IR자료 업데이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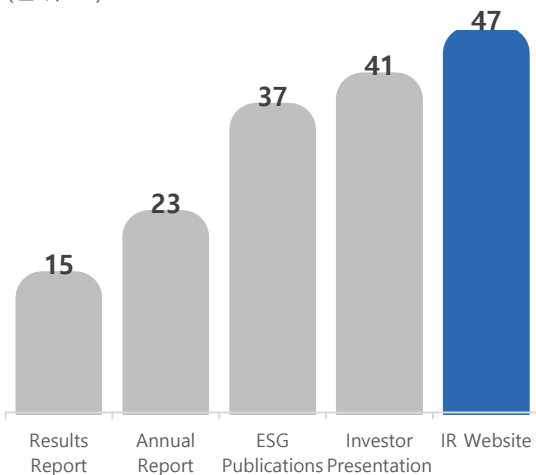


상장 연도	분기별 IR 자료 업데이트 기업명
2017	넷마블, 덴티움, 삼양패키징, 스튜디오드래곤, 씨티케이코스메틱스, 에스트래픽, 오렌지라이프, 진에어, 필어비스 (총 9곳)
2018	셀트리온, 애경산업, 제노레이, 티웨이항공, JTC (총 5곳)
2019	노랑풍선, 이지케어텍, 자이에스앤디, 지노믹트리, 지누스, 천보, 현대에너지솔루션, 현대오트모에버 (총 8곳)

* 오렌지라이프는 2월 14일 기준 상장폐지

2020년 IR 업무 최우선 과제는?

(단위: %)



2019년 글로벌 IR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11th Annual Investor Relations Survey	
발표	Citigate Dewe Rogerson(2019.10)
국가	36 개국 주요상장기업(북미, 유럽, 아시아 등)
기업	상장기업 479개사 (총 시가총액 100조 달러) IRO(Investor Relations Officer) 대상

☐ 자료문의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70-5068-6311/ jshan@irkudos.co.kr

IR큐더스 임규미 선임 070-5068-6314/ rangju@irkudos.co.kr